

2008 전망과 트렌드

③ '문화 흥진' 봄

'풍요로운 삶' 문화서 찾는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발품 팔아 문화적 감성을 채우려는 '마니아'들은 물론, 보통사람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각종 문화콘텐츠를 추구하는 일반인들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동창 모임·접대서 기업 마케팅까지 문화 접목 레스토랑 클래식 공연 마니아들이 살려나기도

오락이 31.6%로 '보건의료'(30.2%), '주거'(28.5%), '교육'(27.9%), '교통·통신'(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에서 막을 올린 오리 지널 뮤지컬 '햇츠'의 경우 광주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장 대중적인 문화장르인 영화를 통한 문화마케팅으로 훌륭한 재미를 보고 있다. 2~3개월에 한 번 꼴로 600여명의 고객들을 초청해 개봉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5·18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 영화 '스카우트'를 비롯, '화려한 휴가', '1번가의 기적' 등을 보여줬다.

동안 운영되지 못하다 마니아들의 노력으로 최근 재개됐다. 콘서트 운영자 신순균(여·42)씨는 "지난해 12월 7일 피아니스트 임미정씨 공연을 시작으로 '레머니스 하우스 콘서트'를 다시 시작했다"며 "50여명의 참석자들은 공연 후에도 한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겨냥 체육시설 확충 2,070억 투입

市 체육진흥 5개년 계획

광주시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등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광주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2012년까지 5년동안 3천36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육시설 확충을 비롯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꾀한다.

이상씩 체육팀의 창단을 유도, 신인 선수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이들을 가르칠 체육 지도자도 매년 30명 이상 양성해 선수들이 선진적인 경기 지도와 개인별 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호남대학교는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5일 호남대 관산캠퍼스에서 '아시아 문화 체험 페스티벌'을 열었다. 국성, 구례, 무안지역 다문화가정 아동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아시아 문화 이해 마당,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투자자문관 이봉래씨 위촉 선진국 5개도시 명예유치자문관도

광주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 이봉래(45·사진) 부장을 신인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하는 한편 선진국 5개 도시에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 해외 투자유치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된 이 부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새해 첫사진

② 서구

발로 뛰는 '현장행정' '행복 서구' 만들겠다



"서구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발돋움했습니다. 올해도 '행복 서구'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주인(사진) 광주시 서구청장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감동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관행에 얽매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일 잘하는 조직, 주민 체감 감동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생활안내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내' (Living Guide) and '신고' (New/Notice).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itizens.

Advertisement for Sony New BRAVIA TV. Features the headline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and lists various TV models and their prices, such as 'X3000시리즈 15~30인치 정품용 울트라 HD 입체영상 특급 울트라 HD 3D 3000시리즈 130만원 정품용 울트라'.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by '대산프리모'. Features a large '30%' discount and the headline '확장 이전 이송사 개업지도'. It includes photos of staff and contact information.